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원장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 감수 : 이연경 · 전화번호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

목 차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인도-미얀마 칼라단 프로젝트 2027년
완전 가동...동북부 공급망 재편 가속화 전망
- 인도 화물 철도사고, 내부자 가담 심각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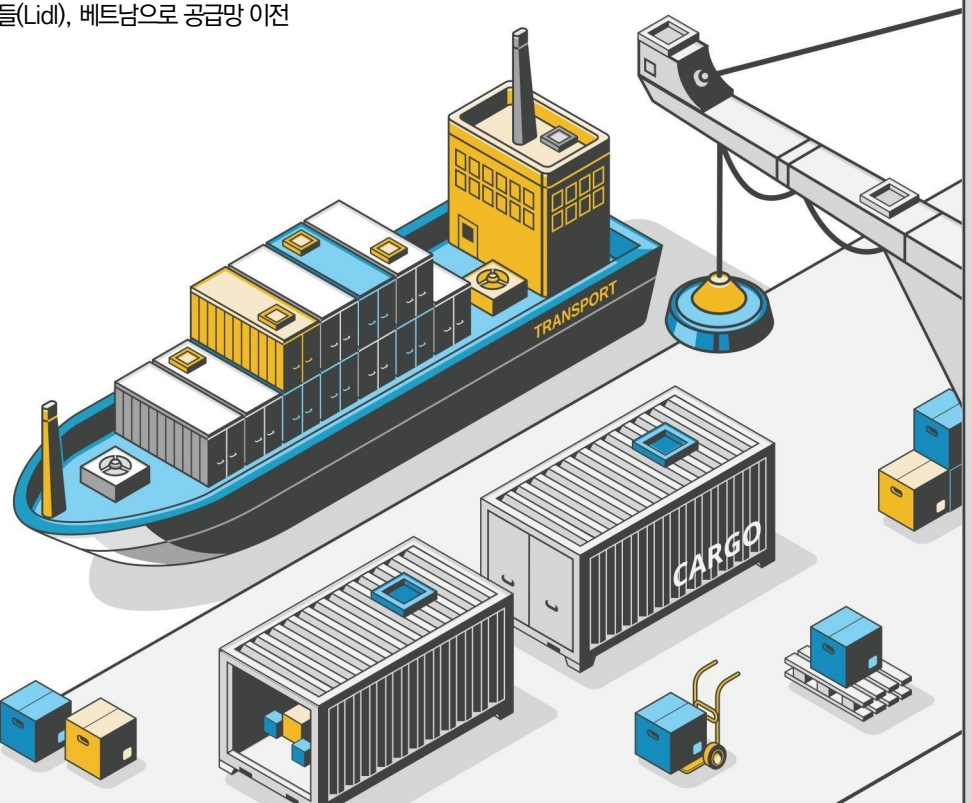
-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 미주 · 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美~멕시코 국경 자율 화물 도로 승인... 100억 달러
규모 '가이드 웨이' 추진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DP World, 4개 대륙에 걸쳐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에 25억 달러 투자
- 유럽 최대 슈퍼마켓 리들(Lidl), 베트남으로 공급망 이전



인도-미얀마 칼라단 프로젝트 2027년 완전 가동...동북부 공급망 재편 가속화 전망

- 인도-미얀마를 연결하는 칼라단 복합 물류망 구축 프로젝트(Kaladan Multi Modal Transit Project)가 '27년 완전 가동 예정
 - '25년 7월 7일, 인도 항만해운수부 장관 Sarbananda Sonowal은 '27년까지 칼라단 프로젝트 전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완전 가동하겠다고 발표함
 - 칼라단 프로젝트는 인도 콜카타(Kolkata)에서 미얀마 시트웨(Sittwe) 항만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해상 구간 539km를 포함해 약 1,000km에 달함
 - 인도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미얀마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국 간 수출입 확대 및 국제물류 운송망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임
 - 칼라단 프로젝트는 '08년 인도와 미얀마 양 국가간 MOU 체결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예비 타당성과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 및 시범 운영을 실시했음
 - 그러나 미얀마 군부 충돌 및 무력 전쟁 등 정치리스크 지속 발생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음
 - 이후 미얀마 정치 여건 및 안보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칼라단 프로젝트 재가동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27년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임

칼라단 복합 물류망 구축 프로젝트 노선도



자료: <https://www.pmfias.com/kaladan-multi-modal-transit-transport-project/> (검색일: 2025.07.08.)

- 칼라단 복합 물류망 구축 프로젝트는 해상, 내륙수로,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연계를 통해 리드타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양국 물류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됨
 - 본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콜카타항에서 미얀마 시트웨항 간 운송거리가 기존 1,880km에서 950km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복합물류망을 기반으로 운송시간 및 물류비용이 최대 50% 절감 가능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칼라단 루트가 활성화 될 경우 현재 병목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리구리 (Siliguri) 회랑에 대한 의존도 감소로 이어져 공급망 안정화 및 물류 루트 다각화가 가능함
- 이에 우리 기업 또한 아세안 지역 내 복합운송 체계 구축에 대비해 신규 복합 운송 루트 확보 방안 모색, 항만 터미널과의 서비스 계약 체결 등 칼라반 복합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원스탑 서비스 구축 필요

인도 화물 절도사고, 내부자 가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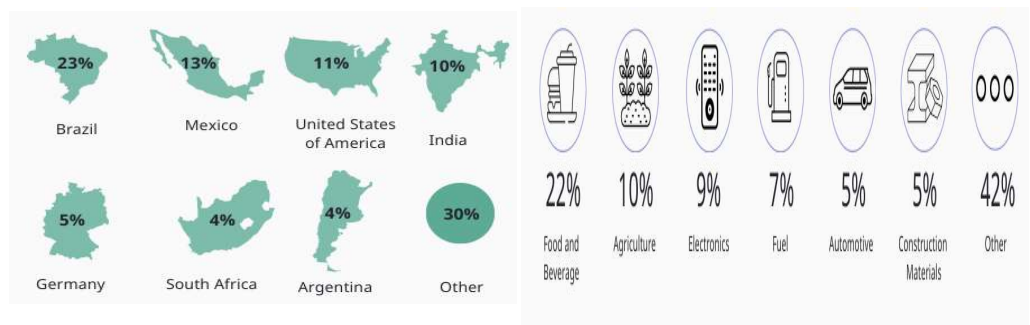
- ▶ BSI Consulting and TT Club 2024 Cargo Theft Report에 의하면, 인도는 전 세계 화물 절도 상위 5개국에 포함되며 전 세계 도난 사건의 10%를 차지함

 - 인도는 화물 절도 다발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라잔스탄(Rajasthan), 하리아나(Haryana), 바하르(Bihar)가 2024년 기준 화물 절도 주요 피해지역으로 나타남
 - 인도 전역에서 식음료, 농산물, 전자제품이 가장 많이 도난당한 품목으로 집계됨
 - 특히, 화물 절도 사건의 26%가 내부자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창고 직원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보안 절차를 유출하거나, 운전기사와 공모해 초과 적재 및 기록 조작을 통해 체계적인 절도를 벌인 사례가 다수 보고됨
 -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지속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공급망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음
- ▶ 현재까지 의약품 절도는 드물지만,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위협으로 부각될 수 있음

 - 2024년 12월 총 3건(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주차된 화물 트럭 1대, 운송 중이던 화물 트럭 2대)의 의약품 화물 도난이 발생함
 - 인도는 세계 최대 의약품 생산국 중 하나로서, 이러한 절도는 글로벌 보건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한편, 글로벌 공급망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범죄 조직의 활동과 기술 악용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

 - BSI Consulting and TT Club 2024 Cargo Theft Report에 따르면 2024년 세계 화물 절도는 식음료(2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농산물(10%), 전자제품(9%), 연료(7%)가 뒤를 이음
 - 화물 절도 상위 국가는 브라질(23%), 멕시코(13%), 미국(11%), 인도(10%), 독일(5%), 아르헨티나(4%), 남아프리카공화국(4%)으로 나타남
 - 전체 절도의 76%는 트럭에서 발생했으며, 18%는 창고, 2% 기차 등의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도난의 대부분은 운송 중(41%)에 발생함
 - 특히, 범죄 조직은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이메일, 위조 선하증권, 딥페이크, 악성코드 등을 이용한 전략적 절도를 시도하고 있으며, 창고, 환송 지점은 특히 취약한 지점으로써 고급 보안 대책,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요구됨

화물 절도 발생 상위 국가 및 주요 도난품



자료: <https://www.ttclub.com> (검색일: 2025.07.09.)

➤ 화물 절도 범죄 수법의 진화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스마트 기술과 인적·물적 보안 강화를 결합한 통합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잠금장치와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 비인가 개방 시 관리자에게 즉시 경고 신호 전송 가능하며, GPS 기반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화물의 이동 상태를 감시하고, 예상 경로 이탈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함
- (운송사·트럭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관리) 운송사 선정 시 최소 1년 이상 운영 이력 확인, 승인된 차량(VIN, 차량번호)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화물 인도 시 검증 절차 강화, 트럭 운전자에 대한 신원 조회와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내부자 가담 위험 차단함
- (안전한 경로 및 주차 장소 지정) 고위험 지역 및 야간 운행 구간에 대해 안전 경로 설계하고, 조명, 울타리, 경비원 배치된 검증된 주차장 사용, 운전자에게 “정차 금지 구간”을 지정해 정차로 인한 위험 예방이 가능함
- (사이버 보안 강화와 IT 시스템 점검) 도메인 기반 메시지 인증(DMARC), IP 차단, 이메일 모니터링 솔루션 등을 통해 계정 탈취 및 위조된 이메일 방지, 전 직원 대상 피싱 방지 교육을 통해 디지털 보안 의식 제고가 기대됨
- (재고 및 문서 관리 프로세스 정비) 창고 재고 데이터의 주기 입력을 지양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위조 가능성 차단, 화물 적재량과 배송 문서를 수시로 대조해 불일치 여부 조기에 탐지가 가능함

참고자료: <https://www.ttclub.com> (검색일: 2025.07.08.)

美, 멕시코 국경 자율 화물 도로 승인... 100억 달러 규모 '가이드 웨이' 추진

- 美 행정부는 그린 코리도어스에 대통령 허가를 발급해 美~멕시코 간 자율 화물운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가이드웨이 프로젝트' 본격화
 -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그린 코리도어스(Green Corridors)'에 국경 간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건설·운영·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허가(Presidential Permit)'를 발급함
 - 주요 인허가 내용은 자율주행 셔틀이 화물을 운반하는 총 165마일(약 266km) 길이의 고가 '가이드 웨이(Guide way)'를 美 텍사스주 라레도와 멕시코 몬테레이 사이에 건설하도록 승인하는 것임
 - 해당 승인은 단순한 건축 인허가가 아닌, 국가 간 국경 관리, 무역, 외교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승인으로 간주됨
 - 현재 그린 코리도어스는 멕시코 정부의 인허가 확보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터미널 건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개발업체와 협상 중이며 2031년까지 완공 및 테스트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린 코리도어스의 고가 '가이드웨이(Guide way)' 제안(안) 조감도



자료: GREEN CORRIDORS (검색일: 2025.07.07.)

- 해당 프로젝트는 멕시코발 美 물동량 급증으로 국경 간 물류 병목을 해소하고, 美~멕시코 무역 회랑의 처리능력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됨
 - '가이드 웨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내 제조 거점 증가로 인해 물류기업들의 멕시코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기존 국경 물류 경로의 혼잡과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추진됨
 - 美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에 따르면, 라레도 항만은 자동차 부품, 완성차,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등 멕시코발 화물의 주요 수입 관문으로 '24년 해당 항만을 통과한 트럭 건수는 300만 건에 달해 '19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에 그린 코리도어스는 자사의 시스템이 월드 트레이드 브리지와 라레도~콜롬비아

솔리데리티 인터내셔널 브리지를 포함한 기존 상업용 교량의 병목현상 완화하고, 국경 간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힘

- 美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따르면 평일 오후 기준 두 교량의 평균 대기 시간이 약 45분에 달해 해당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대기 시간 단축을 비롯해 공급망 회복력 향상, 멕시코와의 무역 확대에 따른 물류 처리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美 라레도(Laredo)의 월드 트레이드 브리지(World Trade Bridge) 국경검문소



자료: Cheney Orr/Bloomberg News (검색일: 2025.07.07.)

- ▶ 이에 우리 기업은 美~멕시코 국경 물류 자동화를 고려한 통관 방식 전환과 향후 美~중남미 연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복합 물류거점 확보가 필요한 시점
 - 본 사업은 美 내륙 물류 병목 해소 및 멕시코 제조기지와의 연결성 강화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중남미~美 내륙을 잇는 공급망 설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우리 기업은 단순한 멕시코 현지생산을 넘어 중남미~美 물류체계 내에서 전략적 위치 선정을 고려한 복합 물류거점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북미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멕시코 제조 거점(전기차, 배터리, 가전 등)은 기존 트럭 기반 통관시스템에서 벗어나, 향후 해당 가이드 웨이 시스템과 연계한 물류 자동화 전략 및 디지털 통관 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https://www.wsj.com> (검색일: 2025.07.07)

DP World, 4개 대륙에 걸쳐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에 25억 달러 투자

- DP World는 2025년까지 총 25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등 4개 대륙에서 주요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무역 활성화 기업으로서 DP World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시장의 항만 처리능력과 복합 운송 연결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국 투자 프로젝트 현황

국가	투자 내용	세부 내용	기대효과
인도	Tuna Tekra 터미널 (구자라트·Gujarat 주)	5억 천만 달러 투자 1.1km 길이의 선석, 연간 219만 TEU 처리 가능	- 인도 내륙과 글로벌 시장 연결 강화 (도로 및 철도 연계망 확장 포함)
아프리카	DRC 바나나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Banana) 심해항 개발	- 콩고민주공화국(DRC) 대서양 연안 위치 - 연 45만 TEU 처리 가능	물류비 절감 및 아시아·유럽과의 해상 운송 시간 단축
세네갈	은다야네(Ndayane) 항만 개발	8억 3천만 달러 투자 - 연 120 TEU 처리 가능	서아프리카 최대 물류 허브로 성장 가능
남미	에콰도르 포소르하 (Posorja) 항만 확장	1억 4천만 달러 투자 - 선석 700m 확장, Post-Panamax 선박 2척 동시 접안 가능	서아프리카 최대 물류 허브로 성장 가능
영국	런던 게이트웨이 (London Gateway) 물류 허브	10억 달러 투자 2개 신규 선석, 제2 철도 터미널 건설 예정	400명 신규 채용 예정 및 '30년까지 영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도약

자료: 자사 작성

- 해당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인프라 개발에 그치지 않고, DP World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통합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됨
- DP World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항만, 내륙 물류, 철도 및 해상운송을 통합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물류 솔루션을 지속 확장할 방침임

참고자료: <https://www.maritimegateway.com> (검색일: 2025.07.08.)

유럽 최대 슈퍼마켓 리들(Lidl), 베트남으로 공급망 이전

- ▶ 유럽 최대 슈퍼마켓 소매업체 중 하나인 리들(Lidl)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임
 - 리들의 모회사인 슈바르츠 그룹(Schwarz Group)은 2022년 자체 컨테이너 운송 회사인 테일윈드 쉬핑 라인스(Tailwind Shipping Lines)를 설립하여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 유럽 전역 매장으로 상품을 안정적으로 배송하고 있음
 - 현재 테일윈드는 9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한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해운 회사임
- ▶ 테일윈드는 지난 6월 베트남 호치민시와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을 신규 항로에 추가함
 - 기존에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Chattogram in Bangladesh)과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 in Sri Lanka)를 연결하는 항로만 운항했음
- ▶ 포트클랑은 콜롬보를 대체하여 아시아에서 테일윈드의 주요 환적 허브로 자리 매김했으며, 중국과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와 연결됨
 - 테일윈드는 이 아시아 역내 서비스를 통해 섬유 분야의 원자재 및 완제품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 안정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제 공급망을 더욱 강화를 목표하고 있음
- ▶ 리들은 현재 12,35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럽에 위치하고 있음
 - 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부 및 동유럽 지역의 전체 시장 점유율 약 8%를 차지하는 수준임
 - 리들은 주로 식품에 주력하고 있지만, 비식품 제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호치민시와 포트클랑을 운송 경로에 추가함으로써 향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 더 많은 비식품을 수입할 예정임을 시사하고 있음
- ▶ 지난 4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각각 24%와 46%의 관세 조치를 부과받았으나, 이 관세는 7월 초까지 일시 중단됐으며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55%에 달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많은 기업들이 중국 공급업체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자료 : <https://vir.com.vn/>(검색일: 2025.07.08.)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2025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2025.06.02(월) - 09.05(금)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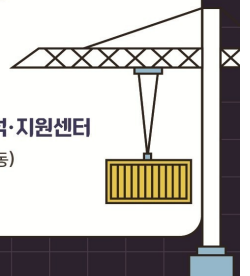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물류창고)로 인증 신청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에 따른다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5년 12월 중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 메일 주소 참고)
- 신청 수수료 납부
 - * 신규 인증 : 300만원
 - * 납부 계좌 :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 문의 : 051-797-4913, kdong@kmi.re.kr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